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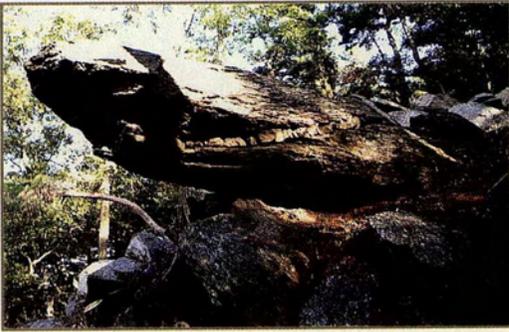
# 파주시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시. 동쪽은 양주시, 서쪽은 남부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북부는 임진강을 경계로 개풍군과 접하고 남쪽은 고양시, 북쪽은 연천군에 접한다. 면적은 672.47km<sup>2</sup>, 인구는 13만9,589 명(2010년 9월 현재)이다.

## :: 소개비냥의 교훈

### 힘 자랑은 바보나 하는 짓



백석산 매바위

탄현면 대동리의 소개비냥은 임진강변에 우뚝 솟은 백석산(白石山)절벽으로 그 아래 강물은 수심이 깊었으며 비냥 위로 좁은 길이 나서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였다 한다. 바로 강 건너 장단에 김승경(金承景)이라는 힘이 세고 활 잘 쓰는 한량이 살았는데 파주에는 종 출신으로 '쇠'라는 상노

와 전광세라는 중인이 살았다. 이 세 사람은 힘이 남달리 세어서 상대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늘 한번 겨루어 보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쇠는 주인 심부름으로 장단 김승경 집에 콩을 실어다 주게 되어 소에 콩섬을 신고 찾아가서 콩섬을 던져 김승경을 죽일 마음을 먹었으나 김승경은 쇠가 항시 자기를 버른다는 것을 알고 충분한 경계를 하면서 대비하였다.

쇠가 콩섬을 소 등에서 내려 김승경에게 힘껏 던지면서 “콩섬 받으시오”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김승경은 사전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선뜻 받아서 땅에 내려놓았다. 이에 놀란 쇠는 힘이 나보다 세다면서 굴복하고 말았다.

전광세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광경을 엿보던 차에 마침내 장단에서 활쏘기 대회가 열려 전광세도 활을 메고 장단 땅에 이르러 김승경과 겨

루게 되었다. 그러나 김승경의 힘이 워낙 세어 패배하고 도망을 쳐서 임진강에 이르니 김승경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는 없고 다급한 나머지 큰 나무를 뽑아 윗 동지를 잘라 물에 띄워 강을 건너려 하니 이 때 백석산마루 꼭대기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전광세의 위급함을 보고 이를 구하고자 “전광세! 지금 내가 나간다”고 소리를 쳤다.

이 사람은 소리를 치면 50리까지 들린다는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 소리를 듣고 뒤따르던 김승경이 주춤하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김승경을 보고 저렇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힘이 얼마나 세겠느냐며 만류하였다. 김승경이 분에 못 이겨 주먹으로 바위를 내려치자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김승경은 무서울 것이 없어 파주와 장단을 드나들며 갖은 행패를 부렸다.

하루는 말을 타고 고랑포나루를 건너 소개비냇에 이르렀을 때 파주 쪽에서 한 젊은 초립동이가 역시 말을 타고 왔다. 두 사람은 바로 비냇 위에서 마주쳤다. 김승경이 길 위로 올라서면 한 사람은 비켜설 수 있는 자리였으나 이 초립동이는 전후좌우 도무지 비킬 도리가 없는 자리였다. 두 사람은 서로 “길을 비켜라” 하고 버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김승경이 화를 내면서 젊은이를 발로 걷어차니 젊은이는 말과 함께 벼랑 밑 강물을 향해 떨어져 내려갔다. 그러나 사람과 말이 물에 닿는 순간 젊은이는 말을 안고 그 높은 벼랑을 단숨에 뛰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김승경은 놀라서 말을 몰아 힘껏 도망쳤으나 그 젊은이에게 이내 잡히고 말았다.

젊은이는 김승경에게 “너 이 팔로 목쓸 짓을 많이 했지?”하면서 한쪽 팔을 만지니 그대로 뼈가 부서졌다. 또 한쪽 다리를 만지며 “이제 그만

뛰어라” 하며 만지는 순간 다리뼈도 부서졌다. 김승경은 주저앉았고 그 젊은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뒤 김승경은 아들 셋을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 셋이 모두 불량하여 행패가 심하였다. 김승경이 하루는 세 놈을 불러 놓고 큰아들보고 주먹 크기만한 돌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큰아들이 돌을 가져오니 김승경이 앞의 큰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는 여기서 거리가 활 한 마장 거리가 된다. 여기서 돌을 던져 저 나무를 맞추어 보라”고 하였다. 큰아들이 힘껏 던졌는데 돌은 나무에 맞아 나무껍질이 벗겨지며 튕겨 나왔다. 둘째 아들도 던졌는데 돌은 겨우 나무 앞에 가서 떨어졌다. 셋째 아들이 던지니 돌은 중간 지점에서 떨어졌다. 이번에는 김승경이 그 돌을 주워서 한쪽 다리는 절고 한쪽 팔은 쓰지 못하는 몸이면서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던졌다.



돌은 공기를 헤치며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날아가 나무에 닿는 순간 총알처럼 나무에 박히고 말았다. 아들 셋이 입을 벌린 채 놀랐다. 김승경은 조용히 말하였다.

“애들아, 내가 비록 몸은 다쳤지만 너희 셋의 힘을 당해낸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열 배는 더 강했을 것이다. 이러한 내가 소개비냥에서 젊은이가 한번 만지는 대로 팔과 다리가 부서졌으니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한다. 팔다리 다친 애비의 힘만도 못한 너희들이 감히 어디라고 힘 자랑을 하며 행패를 부리느냐, 이러다가는 너희들도 애비와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니 명심하라.”

아들 셋은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그 후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 ❖ 임진강과 임진왜란

### 깜깜한 밤에 임진강을 건너 피신한 임금님

임진강은 삼국시대 당군(唐軍) 주둔 당시 표로하(瓢蘆河)로 호칭되었으나 고려말 공양왕이 왕조신주(王朝神主)를 돌배에 모시고 도망갈 당시 도감포 아래 연못에 수장되었다 하여 구연강(仇淵江) 또는 신지강(神智江), 낙하(洛河) 등으로 불렸다. 이 강이 임진강이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대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몰려오자 선조는 조정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의주로 파천하기로 하고 피난길에 올랐다. 한양을 출발, 고양 벽제



화석정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 파주시 유형문화재 제61호

관에서 하룻밤을 잔 후 혜음령을 지나 분수원 신탄막(新炭幕)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 파주목 관사에서 다다르니 전령이 급히 달려와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선조 일행은 한밤중이라도 임진강을 건너야겠다는 각오로 비가 오는 가운데 동파나루에 당도하니 깜깜한 그믐날밤 역수같이 쏟아지는

폭풍우 속에 건너갈 길이 막막하였다.

호종하던 충신들이 수 시간에 걸쳐 공론이 분분한 가운데 울곡이 강가 화석정에서 옛날 제자들을 지도할 당시 도리, 기둥, 석가래, 마루에 기름칠을 했다는 말을 들은 이항복이 강변 높은 곳에 있는 정자에 불을 사르니 화광이 충천하여 앞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임금을 태운 배는 폭풍우에 뒤집힐 듯 하면서 간신히 강을 건너갔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환도할 때였다. 다시 이강에 당도하여 조정을 위하여 순국한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고자 나루터 강변 모래사장에 제물을 차려놓고 위령제를 지냈다.

의주로 파천할 당시 그믐밤 폭풍우 속 갓은 고생 끝에 이 나루를 건너게 된 쓰라린 아픔이 떠올랐다. 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용감한 충신들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선조는 통곡하며 “그래도 하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나루를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였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임할 임자와 나루진 자를 붙였다는 것이다. 신지강이라 불렀던 강이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임진강(臨津江)이 되었다고 전한다.